

기본급 184,900원 인상!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회사의 노동안전보건 의무 확립! 성폭력 예방 및 금지!



# 지부교섭 속보

6호

2023.06.09(금)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박종우 ■주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9차 지부교섭\_ 제시안 없음]

## 점점 더워지는 날씨 시원한 제시안이 필요하다

### 제시안 없는 헛걸음 교섭

9차 지부교섭이 8일(목) 대전 한국로버트보쉬에서 열렸다. 사측 교섭위원들은 제시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교섭은 4분 만에 끝났다.

지난주 교섭에서 사측은 1차 제시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내용은 노동안전보건 의무에 대한 내용 딱 한가지 뿐이었다. 지부는 이번주 교섭에서는 모든 요구안에 대해 일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9차 교섭은 다시 헛걸음이 되었다.

### 시간은 충분했다!

올해 교섭은 질의응답도 3차례나 진행했고, 질의응답 이후 3주나 흘렀다. 사측이 고민할 시간은 충분했다. 성의있는 제시안이 나와야 할 때다.

### 교섭위원들 한국타이어 연대 활동 벌여

교섭에 앞서 지부 교섭위원들은 한국타이어 총고용 보장을 위한 선전활동에 함께 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이후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한국타이어 자본을 규탄하고 총고용 보장을 쟁취하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 <6/8(목) 교섭위원 공동실천 활동> 한국타이어 총고용 보장하라!



## 9차 교섭 속기록

# 이렇게 교섭하면 불쾌지수 올라간다

**노 :**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이 심각하다. 지부가 매번 길거리에 나서고 있다. 오늘이 9차 교섭이다. 8차 교섭에서 나온 안은 많이 부족했다. 오늘은 다른 요구안에 대해서도 제시해달라고 했다. 제시안 제출 부탁한다.

**사 :** 여러번 봐서 그런가 친숙해졌다. 날씨도 더워지고 있고 앞으로 더 온도도 오르고 습도도 오르고 불쾌지수도 오를 것 같다. 앞으로 여정은 조금 달랐으면 좋겠다. 불쾌지수 올라가지 않도록 좋은 토론과 협의 과정이 되면 좋겠다.

**노 :** 오늘 제시안 제출해달라.

**사 :** 오늘은 안을 준비 못했다. 교섭 시작 전에 실무 토론을 하고 어제도 모여서 한참 토론했다. 요구안 중에 1, 2번 사항은 중앙과 겹치고 임금인상은 각 사에서 논의 중인 걸로 안다. 나머지 요구안도 약간의 이견이 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노 :** 지난주에 이번 차수에는 임금 요구안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한 사업장도 못하나?

**사 :** 올해 임금인상을 지부교섭에서 다룬다고

했는데 지회별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안다.

**노 :** 원래 임금인상안도 지부교섭에서 다루고 논의해서 지회로 내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올해는 지부교섭에서 임금인상안도 제출받고 논의할 예정이다.

**사 :** 올해 요구안이 쉬운 듯 하면서 어렵다.

**노 :** 중앙교섭에서는 제시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제시 못하나?

**사 :** 중앙과 겹치는 요구안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지부 요구안이다 보니 한 주만 더 시간을 달라. 다음주는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노 :** 안이 없다면 더 이상 논의하는게 무의미할 것 같다. 보통 8~9차 교섭하면 노조에서 조정신청에 들어갔다. 그런데 올해는 조정신청까지 11~12차까지 교섭할 시간이 있는데 벌써 제시안을 못내겠다니 난감하다. 임금 포함해서 빠짐없이 제출해주길 바란다.

**\* 차기 교섭 : 6/15(목) 14시 30분, 지부**